

광주 아시아도자문화관 다음달 첫 삽

국립광주박물관 올해 중점과제 발표

2025년 10월 완공... 2년 거점 기대
광주비엔날레와 공동 기획전
개인 소장 기증 서화 특별전 등 개최
신창동 유적 등 콘텐츠 발굴 연구도

도자문화관 건립 첫삽, 비엔날레 주제 전시, 회화기
중작품전, 신창동 유적 연구...

해방 후 우리 손으로 건립한 지역 최초 국립박물관
인 국립광주박물관(광주박물관·관장 이예령)은 올해
가 의미있는 해다. 아시아도자문화관 건립 첫 삽을 뜨
기 때문이다.

광주박물관이 건립된 것은 1976년 수증발굴이 시
작된 신안해저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2만여
점에 가까운 해저 유물은 일부는 상설전시장에서 전
시되고 있지만 다수는 수장고에 보관돼 '긴 잠'을 자
고 있는 실정이다.

언급대로 올해 광주박물관은 아시아 도자문화 교
류 거점이 될 도자문화관 건립 첫 삽을 오는 4월 14일
쯤 예정이다.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도자문화관 건립은 광주박물관의 핵심 키워드인 '도
자기'와 지역 의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융합해
우리 지역 도자기를 아시아와 세계 속의 문화로 알린
다는 복안과 연계돼 있다.

광주박물관이 6일 '과거와 현재, 미래 소통 공간'을
주제로 한 올해의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건립과 관련 전시도
차근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안해저문화재 중 송
원대(송나라, 원나라) 시대 생산된 6100여 점을 체계
적으로 정리한 '신안해저문화재조사연구총서 4-백
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작품을 대상으로
정밀 스캔과 CT 촬영을 통해 3차원 디지털 원형도 확
보할 방침이다.

올해는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다. 지역민의 문
화향유권 제고와 관련, 광주박물관은 '물처럼 부드럽
고 여러께' 가운데 '일시적 주권'이라는 주제를 개최한
다.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
으로 오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을 비
롯해 중앙홀, 다목적실, 야외정원에서 펼쳐진다.

캐디스 린 등 6명의 현대 작가 작품을 비롯해 광주
박물관 소장품인 '신안 청자대반' 등 200여 점을 함께
전시할 계획으로 차별과 역안의 아픔을 극복한 미래



오는 4월 착공돼 2025년 10월 완공 예정인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조감도.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신안 해저 유물

지향적인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다.

서화를 모티브로 한 전시도 열린다. 남도는 여는 지
역과 달리 서화가의 고장이었다. 남도가 예로부터 '예
향'이라고 불렸던 가장 큰 요인은 글씨와 그림이 주가
되는 서화가 융성했기 때문이다.

광주박물관은 개인 소장 기증 서화의 가치와 의미
를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오는 9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애중(愛重), 사랑
하고 소중히 아끼 그림' 특별전을 열 계획이다. 조선
말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기증 작품을 최초로 공개해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나눌 방침이다.

콘텐츠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도 추진된다. 우리 고
장 대표 선사유적지인 광주 신창동 유적을 모티브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 '광주 신창동 유적의 문화경관
복원 연구'를 매개로 신창동 유적의 토양시료 등을 분
석해 과거의 환경을 복원한다는 복안이다.

역사문화실에 전시중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과 관련 종합보고서도 발간된다. 석등에 대한 학문
적 의미 외에도 당초 자리에서 옮겨져 광주박물관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어린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어린이박물관'도
개편한다. 6-10세 어린이를 위한 체험공간과 아울러
5세 이하를 위한 유아공간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그것.
개편 주제 또한 아시아 도자문화와 연계된 '모두의 도
자기'로 정해 전시와 놀이, 체험공간을 상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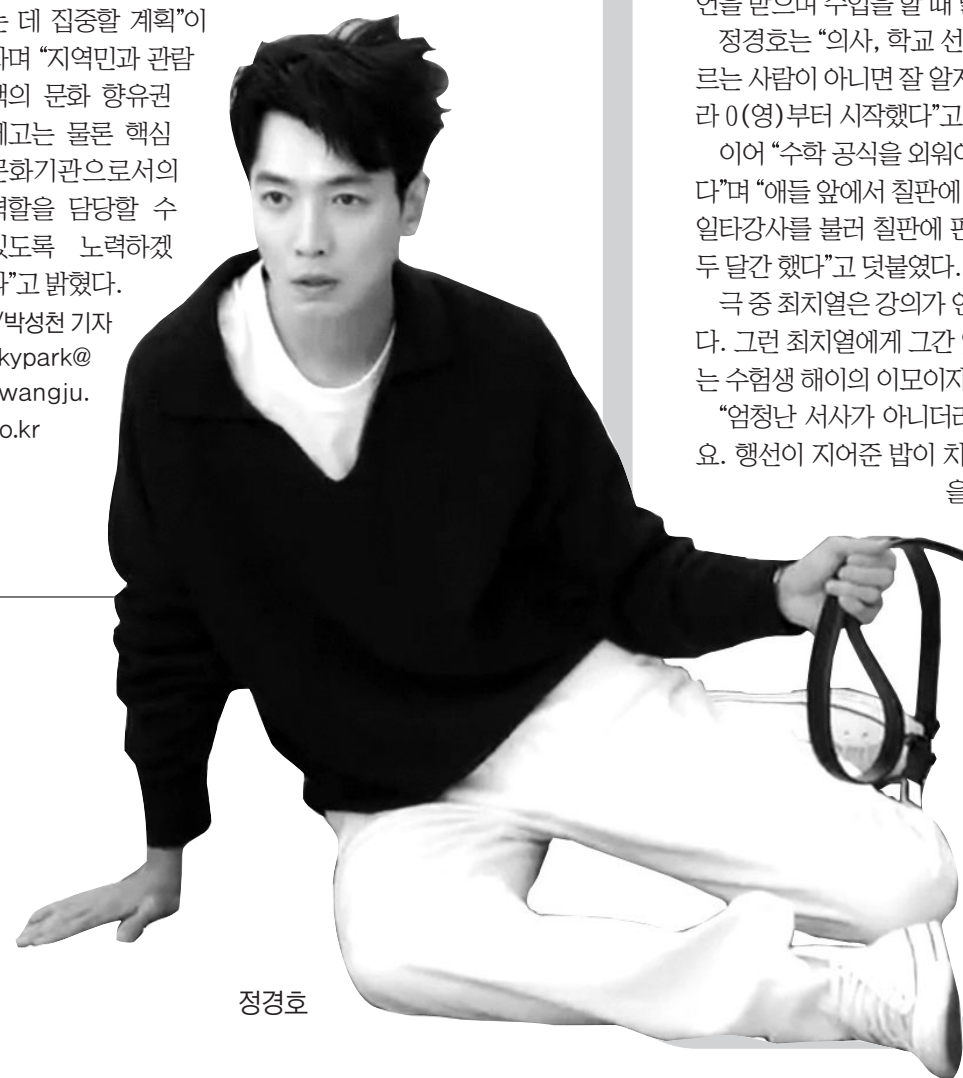
올해도 박물관교육과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추진된
다. 전시 및 문화재와 연계한 맞춤형 박물관교육 프
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어린이박물관학
교' 등 총 15개 교육과정 162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문화행사 등도
총 10종 28회가 준비돼 있다.

아울러 거점 박물관으로 지역문화기관과의 지원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
은 '광주전남지역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학술출판사
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한편 이예령 광주박물관장은 "올해 준비한 중점 과
제를 차질없이 진행해 아시아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

는데 집중할 계획"이
라며 "지역민과 관람
객의 문화 향유권
제고는 물론 핵심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kwangju.
co.kr



정경호

드라마 '일타스캔들' 정경호

'까칠'한 일타강사에 '허당' 한스폰 넣었죠

실제 일타강사에 수업 조언... 전도연과 케미 최고

까칠하지만, 알고 보면 속정 깊은 남자. 로맨스 드라마의 전형적인 남자
주인공에 가깝음 허당대고 어떨 때는 허술한 듯한 인간미를 한스폰 넣으니
조금은 색다른 캐릭터가 완성됐다.

배우 정경호가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에서 연기한 최지열의 모습이
다. '1조원의 남자'로 불리는 최지열은 학원가에서 손꼽히는 일타강사(최
고 인기강사)지만, 비실비실한 체력으로 휘청이거나 다리가 풀려 넘어지
는 '똥개'를 선사하는 인물이다.

정경호는 "잠도 못 자고 섭식장애도 있는 예민한 캐릭터에 인간적인 모
습을 넣고 싶었다"며 "제가 잘 (연기)하는 '하찮음'을 보여주면 좀 더 사람
답게 보이게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실제 마른 체형인 정경호는 그동안 까칠한 캐릭터를 많이 맡았다. '슬기
로운 의사생활1·2'에서는 예민한 흉부외과 의사,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는 개인주의가 강한 교도관, '미씽나인'에서는 한때 잘나갔던 밴드의 리더
를 맡았다.

정경호는 "수년간 예민하고, 날카롭고, 까칠하고, 샤프한 비웃듯한 역
할을 해오다 보니 고민도 있었다"며 "하지만 최지열을 하면서 과거에 표현
했던 (캐릭터의) 아픔들과 제 나이가 마흔하가 돼서 표현하는 게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최지열은 그간 드라마에서 주인공 직업으로는 보기 드물었던 일타강사.
정경호는 집에 칠판까지 사두고 판서 연습을 하고, 실제 일타강사에게 조
언을 받으며 수업을 할 때 말투 등을 배웠다고 했다.

정경호는 "의사, 학교 선생님 등은 주변에 있지만 일타강사는 입시를 치
르는 사람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한다"며 "나 역시 '일타'가 무슨 뜻인지도 몰
라 0(영)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학 공식을 외워야 하는데, 이해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외웠
다"며 "애들 앞에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장면이 10분 정도 나오는데 집으로
일타강사를 불러 칠판에 판서를 써달라고 하고, 그걸 따라서 쓰는 연습을
두 달간 했다"고 덧붙였다.

극 중 최지열은 강의가 인생의 전부인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다. 그런 최지열에게 그간 잊고 살았던 일상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
는 수험생 해이의 이모이자 반찬가게 사장인 남행선(전도연 분)이다.

"엄청난 서사가 아니더라도 우연히 톡 건넌 나 오는 감정이 있었잖
아. 행선이 지어준 밥이 지열에게 그런 매개체가 된 거죠. 밥을 한입 먹었
을 때 '왜 좋지?'라는 의문이 들면서 과거 힘들었

을 때 행선의 어머니가 베풀어주셨
던 따뜻한 기억이 떠오른 거예
요. 우연히 찾아온 운명적인 인연
인 거죠."

사실 드라마가 방송되기 전에는 정
경호와 10살 연상인 전도연과의 로맨스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경호는 "전도연과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케미(케미스트리)가 안 나
겠느냐"며 "그런 걱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연합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식물 안내서 발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해 개최된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 출품된 식물 안내서를 발간
했다고 6일 밝혔다.

식물 특성·구입처 등 정보가 담긴 안내서는 최근 전
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조경기업 등에 배포됐다.

안내서는 누리집(www.koagi.or.kr)에서도 무료
로 내려받아 정원을 조성할 때 참고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다양한 정원 소재가 시장에 보급
돼야 정원 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며 "전시·품
평회에 출품된 새로운 정원식물이 널리 활용될 수 있
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오는
5월 19일부터 열흘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